

『牧牛子修心訣』의 저술과 간경도감 언해본 및 후인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Writing of *Mogujasusimgyeol* and
Its Gangyeongdogam Eonhaebon and Huinbon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목우자수심결언해』의 판본 |
| 2. 지눌의 생애와 『목우자수심결』의 저술 | 5. 결 론 |
| 3. 『목우자수심결』의 구결 및 국역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의 저술 및 내용, 구결 및 번역, 간경도감 언해본 및 후인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이다. 『목우자수심결』의 저자는 보조국사 지눌이고, 저술 시기는 고려 명종 28년(1198)부터 희종 5년(1209) 사이이다. 이 책의 구성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체계화되었고, 9개의 문답형식을 빌어 공적영지심, 돈오와 점수 그리고 정혜쌍수에 집중되고 있다. 구결은 비현합에서 이루어졌지만, 세조가 직접 구결을 감독하고 신미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인사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번역 작업은 신미에 의해 이루어졌다.

간경도감은 세조 13년(1467)에 비현합에서 구결하고 이를 신미가 국역한 『목우자수심결』을 『목우자수심결언해』의 서명으로 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끝에는 역시 신미가 구결하고 국역한 『사범어언해』가 뒤에 합철되어 있다. 이의 저본은 세종 23년(1441) 영해부의 윤필암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여겨진다. 『목우자수심결언해』에는 당시 불경 언해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은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고 크기는 27.5×16.7 cm이다. 판심제는 ‘修心訣’ 또는 ‘法語’로 표기되어 있다. 언해·유환·박경이 필서하였고, 자체는 한글은 정방형 고딕체로 쓰여 있으며, 한문은 원필의 안진경체 필의가 보인다. 이 원간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보물 제770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보물 제934호, 개인소장본인 보물 제1848호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원간본으로 개인소장본과 일본의 소장문고본이 남아 있다. 이들 판본은 모두 인쇄상태가 양호하고 보관상태도 좋다. 소장문고본은 원문에 혼독부호가, 언해문에 구두점이 주목적으로 기입되어 있다. 연산군 6년(1500)본은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여 연산군 6년(1500)에 경상도 가야산 봉서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간경도감판을 그대로 번각했기 때문에 내용과 체제에 있어 원간본과 거의 동일하다. 이때 새긴 목판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개인소장본(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8호)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목우자수심결언해』만 남아 있고 『사범어언해』가 합철되어 있지 않다. 선조 즉위년(1567)본은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되 선조 즉위년(1567)에 순창 취암사에서 새로 판을 조성하여 판각한 것이다. 『목우자수심결언해』의 말미에 ‘隆慶元年(1567)六日全羅道淳昌地驚菴開刊’의 간행기록이 있다. 기존의 간경도감판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사주단변의 선이 굵고 흑구도 대흑구이다. 필사자의 기록이 없어 누구의 필체인지 알 수 없지만 필체가 강하고 필선에 힘이 있으며 인쇄가 선명하고 먹색이 고르다. 현존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목우자수심결언해』만 남아 있고 『사범어언해』가 뒤에 합철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기록학, 한국학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목우자수심결』, 『목우자수심결언해』, 지눌, 비현합, 신미, 간경도감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8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6일
서지학연구, 제73집, 99-129,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99]

<ABSTRACT>

This paper is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writing and contents of *Mogujasusimgyeol*, its gugyeol and translation, and the Gangyeongdogam eonhaebon and huinbon *Mogujasusimgyeol* was written by National Preceptor Bojo Jinul during the Goryeo Dynasty between the 28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1198) to the 5th year of King Huijong's reign (1209). The book is composed in a system of seobun, jeongjongbun, yutongbun, and uses 9 question-and-answer formats to focus on "gongjeokyeongjisim," "don-o," "jeomsu" and "jeonghaessangsu." The gugyeol was done in Bihyeonhap of Gyeongbokgung Palace, with the process presumably directed by Sejo himself and involving Buddhist personages centered around Sinmi. The translation of the text was done by Sinmi.

Gangyeongdogam published as a woodblock print book as *Mogujasusimgyeol-eonhae*, the name of the Korean language translation of *Mogujasusimgyeol* in the 13th year of King Sejo's reign (1467). Sabeob-eo-eonha, of which the gugyeol and Korean translation was also done by Sinmi, is attached to the end of the book. The original text is considered to be the edition published in Yeonghaebu's Yunpilam in the 23rd year of King Sejong's reign. The book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cripture translations of the times. The characteristic of the engraving is "sajussangbyeon bangwak 18.8×12.8 cm, yugye, banyeop 9-stanza-17-character, jussanghaeng, heukgu, sanghanaehyangheukeomi" with the size being 27.5×16.7 cm. The center of the book pansimje is marked with "susimgye" or "beob-eo." The writing was done by An Hye, Yu Hwan, and Park Gyeong with hangeul written in square Gothic type and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original's Yan Zhenqing type. The original text is Treasure No. 770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reasure No. 934 in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nd Treasure 1848 in a private collection, while undesignated original texts remain in a private collection and in Japan's Sochangmungo. All of the editions are in good print condition and well-preserved. The Sochangmungo edition has Korean translation marks in the text, and the punctuation of the eonhae text is in jumuk. The edition from the 6th year of Yeonsangun (1500) modeled itself after the Gangyeongdogam edition and was engraved the same year in Bongseo Temple in Gyeongsang Province's Gaya Mountain. It was engraved exactly like the Gangyeongdogam edition, making it nearly similar to the original text in content and format. The woodblocks engraved at this time are now housed in Haeinsa.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private collections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08), etc. The edition in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only has *Mogujasusimgyeol-eonhae* without Sabeob-eo-eonhae compiled at the end. The edition made the year Seonjo came to the throne (1567) used the Gangyeongdogam edition as the model, but was engraved using new woodblocks made in Sunchang Chuiamsa in the same year. At the end of *Mogujasusimgyeol-eonhae* there is a publication record of "Yunggyeongwonnyeon (1567) Yuggiljeolladosunchangjichuiamgyeongan." Although it imitates the existing form of the Gangyeongdogam edition, the sajudanbyeon lines are thick and the heukgu are daeheukgu. While there is no record of the writer, the handwriting is firm, the lines powerful, the printing clear, and the color of the ink even. The existing copy is held in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but only as *Mogujasusimgyeol-eonhae* without Sabeop-eo-eonhae added at the end.

This study will be used as future basic research material in the fields of bibliography, archival studies, and Korean studies.

Key words: *Mogujasusimgyeol*, *Mogujasusimgyeol-eonhae*, Jinul, Bihyeonhap, Sinmi, Gangyeongdogam

1. 서론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이 수심의 기초가 되는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의 성격을 밝히고 수심의 체계로서 돈오점수론(頓悟漸修論)의 내용과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정혜쌍수론(定慧雙修論)을 제시하고 있다. 줄여서 『수심결(修心訣)』이라고 한다. 전체의 구성은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체계화하여 마음을 닦는 비결로 깨침과 닦음을 위시한 수심(修心)의 문제를 간명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이 책은 고려 명종 28년(1198)부터 희종 5년(1209) 사이에 저술되었다.

이 책의 간행은 지눌의 저술이 이루어진 후 바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성암고서박물관의 소장본을 통해 고려 충렬왕 31년(1305)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암 소장본은 조선 태종 즉위년(1400)에 지리산 덕기암(德奇庵)에서 중간된 것으로 『목우자수심결』에 『계초심학인문』이 합철되어 있다. 이 『목우자수심결』의 권말제 아래에 ‘大德九年乙巳(1305)七月 日誌’와 함께 ‘同願道人 眞問書’ 및 다음 장에 ‘棟梁道人 祖雲/同願道人 神鈍/社內道人 行明 雲(弘)刀’의 간행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31년(1305)에 진경이 판하본을 쓰고 행명과 운홍이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이어서 ‘建文二年(1400)八月 日誌/智異山德奇庵重刊’의 기록과 간행에 참여한 ‘幹善道人 志峯/同願禪師 覺西 竺梵 信全/志信 宝莊/信智刀’라는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 그 후 태종 즉위년(1400)에 지리산 덕기암에서 고려 충렬왕 31년(1305)의 판본을 신지(信智)가 번각하여 중간(重刊)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 덕기암 판본은 고려말에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므로 1400년에 간행된 번각본이다.

『목우자수심결』은 세종 23년(1441) 영해부의 윤필암에서 간행될 때 『사범어』와 합철되어 판각되었다. 현재 이 윤필암본이 세조 13년(1467)에 비현합(丕顯閣)에서 친히 구결(口訣)하고 신미(信眉)가 국역하여 간경도감에 간행한 판본의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목우자수심결』은 15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에 유입되었고, 15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대장경에도 모두 수록되어 있어 유통범위가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

기존에 『목우자수심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철학적 연구나 번역에 관련된 국문학 분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목우자수심결』의 판본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고려조에 간행된 판본이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조선조에 간행된 판본도 많지 않다. 다만 간경도감 이전에 간행된 덕기암본과 윤필암본이 남아 있어 간경도감 간행본 이전의 한문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세조 13년(1467)에 비현합에서 친히 구결하고 신미가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하면서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라 하였다. 끝에는 역시 신미가 구결하고 국역한 『환산정응선

1)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63(2015), 75-76.

2) 박상국, “보조국사 지눌의 저술,”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사업회,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불일출판사, 2011), 340.

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송장주송자향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 등 사법어가 합철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은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고 크기는 27.5cm×16.7cm이다. 판심제는 ‘修心訣’ 또는 ‘法語’로 표기되어 있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인쇄 상태가 양호하고 보관 상태도 매우 좋은 원각본들이 보물 제770호, 보물 제934호, 보물 제1848호로 차례로 지정되었고, 개인의 소장본과 일본 소창문고본도 보물급에 해당하는 판본들이다. 이 책들은 『목우자수심결』의 말미에 “成化三年丁亥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라는 간기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행에는 판서자인 안혜(安惠)·유환(柳院)·박경(朴耕)의 이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세조 13년(1467)에 명필가들이 필서하여 간경도감에서 정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자체는 한글은 정방형 고딕체로 쓰여 있으며, 한문은 원필(圓筆)의 안진경체 필의가 보인다. 지질은 얇게 뜯 저지로 조선 초기 세종에서 성종연간에 주로 사용되었던 인경지(印經紙)이다. 이의 후인본으로는 합천 봉서사(鳳栖寺)본과 순창의 취암사(鷲菴寺)본이 남아 있다. 이들 판본들은 간경도감판의 특징과 초기의 훈민정음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목우자수심결언해』에 합철된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의 경우 기존의 선행 연구³⁾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목우자수심결』의 저술 및 내용, 구결 및 번역, 간경도감 언해본 및 후인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서지학, 기록학, 한국학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눌의 생애와 『목우자수심결』의 저술

2.1 지눌의 생애

『목우자수심결』의 저자는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이다. 지눌의 간략한 전기는 이지관(李智冠)의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고려편(高麗篇)」 제4에 실린 김군수(金君綏)가 찬한 「불일보조국사비명(佛日普照國師碑銘)」과 최선(崔詵)이 찬술한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중창기(大乘禪宗曹溪山修禪社重創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연구를 참조해서 지눌의 생애와 『목우자수심결』의 저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눌은 고려 의종(毅宗) 12년(1158)에 황해도 동주(洞州, 지금의 황해도 서흥) 출생이다. 속성은 정씨(鄭氏)이고 휘(諱)는 지눌이다. 자호는 목우자(牧牛子)이며, 시호는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

3)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63(2015), 63-90.

師)이다. 8세 때 조계종의 운손(雲孫, 자기로부터 8대의 법손)인 종휘선사(宗暉禪師)를 은사로 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스님이 되었다. 이후 일정한 스승을 두지 않고, 오직 도덕이 높은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배웠다. 지조가 초매하여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⁴⁾

지눌은 25세이던 명종 12년(1182)에 대선고시(大選考試, 개성 普濟寺에서 실시했던 僧科)에 합격하였다. 이 시기에 지눌은 담선법회(談禪法會)에 참석했던 스님들 가운데 10여 명에게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제안하였다. 이는 정(定)을 익히고, 혜(慧)를 고르게 함을 본분으로 삼고, 예불하고, 경을 읽고, 노동하고, 협력하여 일하는 데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일에 따라 경영하는 결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다음 날 결사를 하게 되면 정혜(定慧)로 이름하자고 약속하였으나, 승과의 결과에 따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였다.⁵⁾

이후 그는 창평 청원사(淸源寺)에서 머물면서 불교수행관의 중심이 되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육조단경(六祖壇經)』을 읽다가 ‘진여자성(眞如自性)이 생각을 일으키면 육근(六根)이 바로 보고 듣고 알고 하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재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놀라고 기뻐하여 일찍이 겪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였다. 그는 일어나서 불전을 돌고 외우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깊은 뜻을 터득하였다.⁶⁾ 이때 깨달은 진여자성은 본래의 마음 즉 부처인 마음이 작동되면 보고 듣고 알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자재하다는 것이다. 그는 『육조단경』을 통해 본래의 마음 즉 부처의 마음을 깨친 것이다. 이 본래 마음의 실상에 대한 눈뜸은 수심불교의 기초가 되고 정혜결사 나아가서는 지눌사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⁷⁾

지눌은 28세이던 명종 15년(1185)에 경북 예천 하가산(下柯山) 보문사(普門寺)로 자리를 옮겨 3년간 대장경을 열람하였다. 이통현(李通玄, 713-741)의 『신화엄경론』의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에 이르러서, ‘한 티끌이 대천의 경전을 머금고 있다는 비유를 들어 여래의 지혜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의 몸 가운데 구족되어 있으나 이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구절에서 나는 경전을 머리에 올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⁸⁾라고 하였다. 이는 『육조단경』을 통해 찾은 본래의 마음 즉 부처의 마음을 깨친 선의 근본 요지와 계합하는 경전의 말씀을 『신화엄경론』의

4) 金君綏, “佛日普照國師碑銘,”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 제4 (서울: 伽山文庫, 1997), 59. “... 師諱知訥 京西洞州(今瑞興郡)人也 嘗自號爲牧牛子 俗姓鄭氏 考光遇 國學學正 妣趙氏 開興郡夫人 生而多病 醫理不效 考迺禱佛 誓以出家疾尋瘳 年甫八歲 投曹溪宗雲孫宗暉禪師 祝髮受具戒 學無常師 唯道之從 志操超邁 軒軒如也 ...”

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 (서울: 동위원회, 2009), 27.

6) 金君綏, “佛日普照國師碑銘,”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 제4 (서울: 伽山文庫, 1997), 59. “... 抵昌平淸源寺 住錫焉 偶一日 於學寮 開六祖壇經 至曰眞如自性紀念 六根雖見聞覺知 不染萬像 而眞性常自在 乃驚喜 得未曾有 起繞佛殿 頌而思之 意自得也 ...”

7) 강건기,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사업회,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불일출판사, 2011), 77.

8) 知訥, 『華嚴論節要』 『보조전서』 (서울: 불일출판사, 1987), 173.

“... 至閱華嚴經出現品 攀一塵 含大千經卷之喻 後合云 如來智慧 亦復如是 具足在於衆生身中 但諸凡愚 不知不覺 ...”

『여래출현품』에서 찾은 것이다. 이로 인해 지눌이 내린 결론은 ‘선(禪)은 조사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선은 불심이며 교는 불어(佛語)라는 선교회통(禪敎會通)의 원리가 되었다.⁹⁾

지눌은 명종 18년(1188) 은둔결사를 창설하기로 결의했던 사람 가운데, 선노(禪老) 득재(得才)가 팔공산(八公山) 거조사(居祖寺)에 거주하면서 지눌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곳에 합류하였다. 거조사의 정혜결사는 여러 종파의 명리(名利)를 포기한 고사(高士)들을 맞아들여 밤낮으로 정(定)을 익히고 혜(慧)를 고르게 하는 수행을 여러 해 일관하였다.¹⁰⁾ 이 때 지눌은 그의 최초의 저작인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이러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불성을 온전히 깨치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¹¹⁾

지눌은 명종 28년(1198)에 일부 수행자들과 함께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옮겼다. 스님은 이곳에서 모든 외연을 물리치고 오로지 내관(內觀)에만 전념하였다. 갈고 닦아 예리한 지혜를 발하며, 깊이 잠심하여 궁극의 근원까지 궁구하였다. 그는 대혜보각선사(大慧普覺禪師)의 『대혜어록(大慧語錄)』을 보다가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도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구하는 것이니, 홀연히 눈이 열리면 비로소 모두가 집안일임을 알 것이다.’라고 한 가르침에서 계합하여 알고는 더 이상 답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편안하고 즐거웠다고 한다. 이로부터 혜해(慧解)가 더욱 높아지고 대중들이 스님을 종사로 우러렀다고 하였다.¹²⁾

지눌은 신종 3년(1200)에 송광산 길상사로 옮겨서 11년간 대중을 지도하였다. 담도(談道), 수선(修禪), 안거(安居) 및 두타(頭陀)¹³⁾ 등을 함께 할 때는 항상 율장(律藏)에 의거하였다. 대중에게 송지(誦持)하기를 권함에는 항상 『금강경(金剛經)』으로서 법을 삼도록 하고, 교의(敎義)를 연설함에는 『육조단경』을 강설하며, 『화엄론』과 『대혜어록』으로 주장을 펴되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9) 강건기, 『목우자 지눌 연구』 (서울: 부처님 세상, 2001), 334.
 10) 金君綏, “佛日普照國師碑銘,”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 제4 (서울: 伽山文庫, 1997), 59.
 “... 適有舊識禪老得才者 住公山居祖寺 邀請懇至 遂往居焉 廣延諸宗 拋名高士輩 刻意勸請 習定均慧 夙夜無斁者 累念矣 ...”
 11) 심재룡, 『지눌 연구: 보조선과 한국불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6.
 12) 金君綏, “佛日普照國師碑銘,”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 제4 (서울: 伽山文庫, 1997), 59.
 “... 至承安三年戊午春 與禪侶數子一鉢 尋智異山 隱居上無住庵 ... 於是 屏黜外緣 專精內觀 磨淬發銳 沿尋窮源 ... 至居智異 得大慧普覺禪師語錄云 禪不在靜處 亦不在 鬧處 不在日用應緣處 不在思量分別處 然第一不得捨却靜處 鬧處 日用應緣處 思量分別處參 忽然眼開 方知是屋裏事 予於此契會 自然不礙膺 讐不同所 當下安樂耳 由是 慧解增高 衆所宗仰 ...”
 13) 두타(頭陀): 산스크리트어로 두타(dhta)이며 ‘버리다’, ‘씻다’를 뜻한다. 이에 두타행이란 곧 집착·번뇌를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불교에서는 12가지 두타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세속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서 산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절식을 한다’ 등이 그것이다. 즉 결식하며 누더기 옷을 입고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이슬을 맞고 잠을 청하는 것이 만행의 기본이다.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절문(徑截門)의 삼종문(三種門)을 열었다. 회종의 명으로 송광산 길상사를 조계산 수선사로 고치고 어필로 편액을 써서 보냈다. 회종 6년(1210) 3월 28일에 입적하였다. 시호를 불일보조국사, 탑호를 감로(甘露)라 하였다. 세수는 53세요, 법랍은 36이었다. 저술로는 『정혜결사문』, 『상당록(上堂錄)』, 『법어(法語)』, 『가송(歌頌)』 각 1권이니 종지를 밝게 세운 내용들이므로 모두 읽을 만한 책들이다.¹⁴⁾

비문 내에 수록된 지눌의 저술 중 『상당록』, 『법어』, 『가송』은 일실되고 전해지지 않는다.

현전본 중 저술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권수정혜결사문』(1190년) 1권,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1205년) 1권,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1207년 1월) 3권, 『육조법보단경발(六祖法寶壇經跋)』(1207년 12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1209년) 1권이다. 저술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목우자수심결』 1권,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1권,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 1권 등이다.

2.2 『목우자수심결』의 저술 및 내용

지눌이 『목우자수심결』을 저술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이 책에는 『대혜어록』이 인용되고 있어서 지눌이 명종 28년(1198)에 일부 수행자들과 함께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옮긴 이후에 저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경절문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가 저술된 회종 5년(1209) 이전에 저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⁵⁾ 따라서 이 책의 저술시기는 명종 28년(1198)부터 회종 5년(1209) 사이이다.

지눌은 『목우자수심결』의 구성을 1) 서분(序分), 2) 정종분(正宗分), 3) 유통분(流通分)으로 체계화하고, 서분에서는 수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정종분은 9개의 문답형식을 빌어 공격영지심, 돈오와 점수 그리고 정혜쌍수에 집중되고 있으며, 유통분은 경에서 설한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희유함을 일깨우고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잘 받들어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분에서 수심의 기본방향은 ‘심즉불(心卽佛)’이다. 즉 “...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몸속을 벗어나지 않는다. 색신(色身, 곧 육신을 이름)은 잠깐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¹⁶⁾라고 하였고, “이 마음을 여윈 밖에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여래도 단지

14) 金君綏, “佛日普照國師碑銘,”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 제4 (서울: 伽山文庫, 1997), 59-61. “... 五年庚申 移居宋廣山吉祥寺 領徒作法 十有一年 惑談道, 惑修禪, 安居頭陀 一依佛律 ... 其勸人誦持 常以金剛經立法 演義則意必六祖壇經 申以華嚴李論 大慧語錄 相羽翼 開門有三種 曰惺寂等持門 曰圓頓信解門 曰徑截門 依而修行 ... 大安二年 ... 三月二十日示疾 凡八日而終 ... 諡曰佛日普照國師 塔曰甘露 閱世五十三齡 受臘三十有六年 生平所著 如結社文 上堂錄 法語 歌頌 各一卷 發指宗旨 咸有可觀 ...”

1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 (서울: 동위원회, 2009), 34-35.

마음을 밝힌 사람이었고,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마음을 닦는 사람이며, 미래에 닦고 배울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해야 한다.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밖에서 구하지 말라. 심성은 물들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인연만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如如佛, 法身을 의미한다]이다.”¹⁷⁾라고 하였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도를 밖에서 구하지 않고 마음을 여인 밖에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2) 정종분은 9개의 문답형식을 빌어 공적영지심, 돈오와 점수 그리고 정혜쌍수에 집중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문답의 질문은 “만약 불성이 이 몸에 나타나 이미 몸 가운데 있어서 범부를 여의치 않을 것인데, 무엇으로 인해 저는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석하여 모두 깨닫게 해주십시오.”¹⁸⁾라고 하였다. 답변은 “... 그대의 몸 가운데 있지만 그대가 보지 못한다. ... 임제(臨濟)스님이 이르기를 ‘그대 앞에 홀로 밝아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라고 하였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법인(法印)이며 또한 너의 본래 마음이다. 곧 불성이 지금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 밖에서 구함을 빌리겠는가?”¹⁹⁾라고 하였다.

제2 문답의 질문은 “그대가 말한 견성(見性)이 만약 참된 견성이라면 곧 성인이어서 웅당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이가 없습니까?”²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점을 말하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이다. ... 돈과 점의 두 문이 모두 성인들의 법칙이다. 즉 위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그 닦음으로 인해 증득하지 않은 이가 없다. 신통변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점 훈습하여 나타나는 바이며 깨달았을 때 곧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²¹⁾라고 하였다

제3 문답의 질문은 “스님이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이 성인의 법칙이다’라고 하였는데, 깨달음이 단박 깨달음이라면 왜 점차 닦음을 빌리며, 닦음이 점차 깨달음이라면 왜 단박 깨달음이라고 말합니

16)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78. “答 ... 若欲求佛 佛即是心 心何遠覓 不離身中 色身是假 有生有滅 眞心如空 不斷不變 ...”

17)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81. “... 離此心外 無佛可成 過去諸如來 只是明心底人 現在諸賢聖 亦是修心底人 未來修學人 當依如是法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卽如如佛”

1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81. “問 若言佛性 現在此身 既在身中 不離凡夫 因何我今 不見佛性? 更爲消釋 悉令開悟”

19)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83. “答 在於身中 汝自不見 ... 故臨濟云 ... ‘只於目前 歷歷孤明 勿形段者 始解說法聽法’ 所謂勿形段者 是諸佛之法印 亦是汝本來之心也 則佛性現在在汝身 何假外求”

20)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86. “問 汝言見性 若眞見性 卽是聖人 應現神通變化 與人有殊 何故 今時修心之輩 無有一人 發現神通變化耶?”

21)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87-188. “答 ... 夫入道多門 以要言之 不出頓悟漸修兩門耳 ... 此頓漸兩門 是千聖軌轍也 則從上諸聖 莫不先悟後修 因修乃證 所言神通變化 依悟而修 漸熏所現 ...”

까? 돈과 점의 두 가지 뜻을 다시 배풀어 설하시어 남은 의심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²²⁾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답은 “돈오라는 것은 범부가 미혹할 때에는 사대(四大: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스런 앎이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여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걸 따라 떠다니다가, 홀연히 선지식이 들어가는 길을 가리켜 보임을 입어서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지성(無漏之性: 중생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구축해서 곧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돈오라고 한다. 점수라는 것은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비롯함이 없는 습기는 단박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 훈습하는 공덕을 이루고 성인의 태(胎)를 기를이니, 오래하고 오래하면 성인을 이루기 때문에 점수라고 한다.”²³⁾라고 하였다.

제4 문답의 질문은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에 근기를 돌이켜 문득 자기의 성품을 깨닫습니까?”²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단지 그대의 마음일 뿐이니, 다시 무슨 방편을 짓겠는가. … 자기의 신령스런 일(靈知)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기를 구하는가. 만약 알기를 구하고자 하면 문득 앎을 얻지 못한다. 다만 알지 못함을 알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²⁵⁾라고 하였다.

제5 문답의 질문은 “높고 높은 사람은 들으면 곧 쉽게 알지만 중간이나 그 아래의 사람들은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방편을 말씀하시어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²⁶⁾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는 공(空)하며,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서 신령스러운 앎은 어둡지 않다. 곧 이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이 그대의 본래 진면목이며, 도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들이 비밀스럽고 비밀스럽게 서로 전한 법인이다. …”²⁷⁾라고 하였다.

22)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89-190. “問 汝言 ‘頓悟漸修兩門 千聖軌轍也’ 悟既頓悟 何假漸修 修若漸修 何言頓悟? 頓漸二義 更爲宣說 令絕餘疑”

23)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0-191. “答 頓悟者 凡夫迷時 四大爲身 妄想爲心 不知自性是眞法身 不知自己靈知是眞佛 心外覓佛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一念迴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元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卽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悟也 漸修者 雖悟本性 與佛無殊 無始習氣 難卒頓除 故依悟而修 漸熏功成 長養聖胎 久久成聖 故云漸修也 …”

24)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1. “問 何作方便 一念迴機 便悟自性?”

2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2. “答 只汝自心 更作什麼方便 … 自己靈知 亦復如是 既是自心 何更求會 便會不得 但知不會 是卽見性”

26)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2. “問 上上之人 聞卽易會 更說方便 令迷者趣人”

27)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3-194. “答 … 妄念本寂 塵境本空 諸法皆空之處 靈知不昧 卽此空寂靈知之心 是汝本來面目 亦是三世諸佛 歷代祖師 天下善知識 密密相轉底法印也 …”

제6 문답의 질문은 “저의 분상(分上)에 의거하여 어떤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²⁸⁾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서도 신령스러운 앎은 앎은 어둡지 않으니, 무정(無情)과는 같지 않아서 성품이 스스로 신이하게 안다. 이것이 그대의 공하고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 청정하고 공하고 고요한 마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수승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래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 그대가 만약 믿음의 다다름을 얻어서 의심하는 생각이 단박에 쉬고, 장부의 뜻을 내며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몸소 그 맛을 보아 스스로 자기가 수증하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깨달은 곳[解悟處]이다. 다시는 계급이나 차례가 없기 때문에 단박[頓]이라고 부른다. 마치 ‘믿음의 인(因)’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果德)에 계합하여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아야 바야흐로 믿음을 이룬다.’라고 한 것과 같다”²⁹⁾라고 하였다.

제7 문답의 질문은 “이미 이 이치를 깨달았으면 다시 계급이 없는데 어찌하여 뒤의 닦음을 빌어서 점차 훈습하고 점차 이루어야 합니까?”³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 마치 ‘단박 깨달음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깊으니 바람은 멈추었지만 파도가 오히려 솟구치고 이치는 나타났지만 망념이 오히려 침범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또 고(果: 大慧宗杲, 1088-1163) 선사가 말하기를 ‘... 깨달은 후에 길이 반드시 비추고 살펴야 하니, 망념이 일어나면 절대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함이 없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다. 천하 선지식들의 깨달음 후의 목우행(牧牛行)³¹⁾이 이것이다...’³²⁾라고 하였다.

제8 문답의 질문은 “깨달은 이후에 닦는 문 가운데 정혜(定慧)를 고르게 지니는 의미를 진실로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배풀어 설하여 자세히 보이고 미혹을 열어서 해탈의 문으로 이끌어 들여 주십시오.”³³⁾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정(定)은 체이고 혜(慧)는 용이다. ...정이 곧 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혜가 곧 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마치 육조스님이 ‘마음이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이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혜이다’라고 말한 것과

- 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4. “問 據吾分上 何者 是空寂靈知之心耶?”
- 29)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8-199. “答 ... 然諸法皆空之處 靈知不昧 不同無情 性自神解 此是汝空寂靈知 清淨心體 而此清淨空寂之心 是三世諸佛 勝淨明心 亦是衆生本源覺性 ... 汝若信得及疑情頓息 出丈夫之志 發真正見解 親嘗其味 自到自肯之地 則是爲修心之人 解悟處也 更無階級次第 故云頓也 如云 ‘於信因中 契諸佛果德 分毫不殊 方成信也’ ”
- 30)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199. “問 既悟此理 更無階級 何假後修 漸熏漸成耶?”
- 31) 목우행(牧牛行)은 깨달음 이후 계속되는 수행을 소를 먹이는데 비유한 것이다.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돌이켜 자기의 성품을 살피고 다시는 오후수(悟後修)를 가리킨다.
- 32)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200-202. “答 ... 如云 ‘頓悟雖同佛 多生習氣深 風停波尚湧 理現念猶侵’ ... 又果禪師云 ... 故悟後 長須照察 妄念忽起 都不隨之 損之又損 以至無爲 方始究竟 天下善知識 悟後牧牛行 是也 ... ”
- 33)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206. “問 後修門中 定慧等指之義 實未明了 更爲宣說 委示開迷 引入解脫之門”

같다.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자유로이 고요하고 알며 마음과 비춤이 둘이 없으면, 곧 이것이 돈문 수행자가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제9 문답의 질문은 “그대가 판별한 것에 의거하면,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정혜를 고루 지니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성정혜이며, 둘째는 수상정혜다. … 만약 먼저 자성문의 정혜를 의지해야 한다면, 자유로이 고요하고 알아서 다시는 상대해 다스리는 공력이 없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수상문의 정혜를 취해야 합니까? … 만약 먼저 수상문의 정혜로써 상대해 다스리는 공력이 이루어진 연후에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 완전히 이것은 점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가 깨닫기 이전에 점차 익히는 것입니다. 어찌 ‘돈문 수행자가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서 공력 없는 공력을 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 무엇 때문에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아울러 두 종류를 판석하였습니까?”³⁵⁾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 자성정혜를 닦는 것은 돈문에서 공 없는 공을 써서 아울러 움직이고 함께 고요하게 하여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수상문의 정혜를 닦는 것은 아직 깨닫기 이전 점문의 하열한 근기가 상대해 다스리는 공을 써서 마음 마음마다 미혹을 끊어 고요함을 위해서 수행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행문의 행하는 바는 돈과 점으로 각각 달라서 뒤섞여 혼란스러울 수 없다.”³⁶⁾라고 하였다.

3) 유통분은 경에서 설한 가르침을 상고하고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지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방법은 “…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악한 마음을 내지 말고 용맹한 마음을 내야 한다. … 지금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한번 몸을 잃으면 만 겹동안 회복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삼가길 바란다.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보배 있는 곳을 알고도 도리어 그것을 구하지 않고 길이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겠는가? 만약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가족주머니를 내려놓아라.”³⁷⁾라고 하였다.

지눌이 저술한 『목우자수심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눌이 수심의 기초로 삼은 것은 공적영지심이다. 이는 『육조법보단경』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바깥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눌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자각을 통해 명예와

34)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206.

“答 … 定是體 慧是用也 … 定則慧故 寂而常知 慧則定故 知而常寂 如曹溪云 ‘心地無亂自性定 心地無癡自性慧’ 若悟如是 任運寂知 遮照無二 則是爲頓門箇者 雙修定慧也 …”

3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210-212.

“問 據汝所判 悟後修門中 定慧等持之義 有二種 一自性定慧 二隨相定慧 … 若先依自性定慧 則任運寂知 更無對治之功 何須更取隨相門定慧耶? … 若先以隨相門定慧 對治功成 然後 趣於自性門 則宛是漸門中劣機 悟前漸熏也 豈云 ‘頓門箇者 先悟後修 用無功之功’也? … 云何先悟後修門中 並釋二種耶?”

36)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213.

“答 … 則修自性定慧者 此是頓門 用無功之功 並運雙寂 自修自性 自成佛道者也 修隨相門定慧者 此是未悟前漸門劣機 用對治之功 心心斷惑 取精爲行者 而此二門所行 頓漸各異 不可參亂也 …”

37)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222.

“… 願諸求道之人 莫生怯弱 須發勇猛之心 … 今既到寶所 不可空手而還 一失人身 萬劫難復 請修慎之 豈有智者 知其寶所 反不求之 長怨孤貧 若欲獲寶 放下皮囊”

이익을 멀리하고 도를 구하기 위해 철저히 수행하였고,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수심의 체계로서는 9개의 문답을 통해 돈오점수론(頓悟漸修論)과 그 실천방안으로 정혜쌍수론(定慧雙修論)을 주장하였는데, 제1 문답부터 제3 문답까지는 너의 본래 마음이 불성이고, 도에 들어가는 요점은 돈오와 점수라고 하였다. 돈오는 중생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을 알아내는 것이고, 점수는 본래 성품을 알아낸 후에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4 문답부터 제6 문답까지는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 견성과 견성하는 법, 믿음의 인(因)인 공적영지심에 대해 논하였다. 제7 문답부터 제9 문답까지는 깨달음 이후 점수의 묵우행과 묵우행을 닦는데 필요한 정혜의 자성문과 수상문의 수행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끝으로 이 수행에 의지하여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용맹하게 정진할 것과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가죽주머니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3. 『묵우자수심결』의 구결 및 국역

3.1 『묵우자수심결』의 구결

『묵우자수심결』의 구결 작업은 비현합에서 이루어졌다. 구결 작업은 세조가 직접 주관하였고, 신미 이하 불교 관련자들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현합은 경복궁 동궁전인 자선당(資善堂) 동쪽에 있는 전각이다. 세조 9년(1463)에 왕의 연거지소(嚙居之所)로 만들었고, 세조, 예종, 중종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비현각(丕顯閣)이라는 용어는 중종 9년(1514)부터 명종, 선조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고종대에는 동궁전으로 삼았다. 목조 전각으로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이며, 자선당과 함께 동서로 동궁권역을 이룬다.

비현합의 설립은 『세조실록』 9년 11월 8일조에 보면, “사정전(思政殿) 동쪽 모퉁이 내상고(內相庫) 2칸에 창문을 그대로 두고 임금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이를 비현합이라 하였으니 이는 『서경(書經)』에서 ‘새벽에 크게 덕을 밝히시어(昧爽丕顯)’라는 의미의 뜻을 취한 것이다”³⁸⁾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 의거하면, 세조 9년(1463) 경복궁 내 임금이 정무를 보는 사정전 동쪽 모퉁이 내상고 2칸에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만들어 비현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현합은 이후 정무 및 경연에 주로 사용되었고, 진풍정(進豊呈), 재계(齋戒), 나희(儺戲) 관람, 주연(酒宴) 등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세조조 비현합에서 행하였던 일 중 서적의 편찬, 번역 및 교정과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면, 세조 9년(1463) 11월 8일에 『병서(兵書)』의 찬주(纂註)와 『의서유취(醫書類聚)』 등의 일을 의논하였고,³⁹⁾

38)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1월 8일(임술) 1번째 기사.

“壬戌/ 御丕顯閣。【思政殿東隅內廂庫二間置窓隔，以爲無居之所，賜名曰丕顯閣，取《書》昧爽丕顯之義也。】”

39)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1월 8일(임술) 1번째 기사.

같은 해 11월 9일에 이부(李溥)와 최호원(崔灝元)이 『팔괘도법(八卦圖法)』을 지으니 그대로 번역하게 하였으며,⁴⁰⁾ 11월 15일에 성균 유학(成均儒學) 박정손(朴精孫) 등 5인과 겸예문(兼藝文) 정난중(鄭蘭宗) 등 3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또 양성지와 더불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할 일을 의논하였다.⁴¹⁾ 세조 10년(1461) 1월 28일에 장수 20인을 뽑아 무재록(武才錄)이라 하고 병서를 읽게 하여 근만(勤慢)을 상고하게 하였다. 연산군(延山君) 김처의(金處義) 등에게 강(講)하게 하고, 또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병서』의 신주(新註)를 교정(校正)하게 하였다.⁴²⁾

세조조 비현함에 관련된 기사 중 구결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세조 9년(1463) 12월 19일에 신숙주, 최항, 홍응, 송처관, 노사신 등을 불러 『병서』의 구결을 정하였다.⁴³⁾ 세조 11년(1465) 9월 26일에 비현함에서 정자영(鄭自英), 유희익(兪希益), 한계희(韓繼禧), 노사신(盧思愼) 및 강희맹(姜希孟)을 불러 『주역』의 구결을 의논하고 밤중이 되어서야 과하였다.⁴⁴⁾ 동년 10월 21일에 겸예문 유신들에게 『주역』 구결에 대해 물었고,⁴⁵⁾ 11월 25일에는 유생에게 『주역』 구결을 강하게 하였다.⁴⁶⁾ 12월 17일에 겸예문 유신 등에게 『주역』 구결을 묻고, 전지하기를, “이 사람들이 『주역』 구두(句讀)에 매우 정통하니 참으로 기쁘다. 금후로는 내가 친히 정한 구결을 주어서 다 보게 하라.”고 하였다.⁴⁷⁾ 12월 24일에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겸예문 유신을 불러 『주역』 구결을 논하게 하였다.⁴⁸⁾

“壬戌/ 御丕顯閣。… 永順君溥、龜城君浚、銀山副正徹、河城尉鄭顯祖、鎮南君終生、銀川君穰、德城君敏、永川卿定、樂安卿寧、右參贊崔恒、行上護軍宋處寬、吏曹參判洪應、兵曹參判金國光等入侍。設酌，論『兵書』纂註，『醫書類聚』等事。”

40)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1월 9일(계해) 1번째 기사.

“癸亥/御丕顯閣。永順君溥、龜城君浚、銀山副正徹、河城尉鄭顯祖、兵曹參判金國光及入直諸將、承旨等入侍。鎮撫、部將、宣傳官等分左右講兵書，溥及崔灝元作『八卦圖法』，仍令翻譯。”

41)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1월 15일(기사) 1번째 기사.

“己巳/御丕顯閣，講成均儒學朴精孫等五人兼藝文鄭蘭宗等三人經書。… 又與誠之議『東國通鑑』修撰事。”

42) 『세조실록(世祖實錄)』 32권, 세조 10년(1464) 1월 28일(신사) 1번째 기사.

“辛巳/御丕顯閣，召見右參贊崔恒、行上護軍宋處寬、吏曹參判洪應、藝文提學李承召及入直都鎮撫金國光等。上嘗擇武臣堪爲將帥者二十餘人，稱武才錄，令讀『兵書』，考其勤慢。至是，講延山君金處義等，又命恒等校正兵書新註。”

43)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2월 19일(계묘) 1번째 기사.

“癸卯/御丕顯閣，召領議政申叔舟、右參贊崔恒、吏曹參判洪應、行上護軍宋處寬、都承旨盧思愼等定『兵書』口訣。”

44)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9월 26일(경오) 3번째 기사.

“夕御丕顯閣，召成均司藝鄭自英、直講兪希益、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吏曹參判姜希孟，論『周易』口訣，夜分乃罷。”

45)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10월 21일(을미) 1번째 기사.

“乙未 御丕顯閣。… 問難『周易』口訣。”

46)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11월 25일(기사) 1번째 기사.

“己巳 御丕顯閣，議政府、六曹進呈。… 召兼藝文儒臣等，講『易』口訣。”

47)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37권, 11년(1465) 12월 17일(경인) 1번째 기사.

“庚寅 御丕顯閣，召兼藝文儒臣等，親問『易』口訣。傳曰：‘是人等，於『易』句讀頗精，良用嘉悅。今後給與予親定口訣，俾之畢覽。’”

48)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37권, 11년(1465) 12월 24일(정유) 1번째 기사.

“丁酉 御丕顯閣命召侍講官等，講儒生經書。召兼藝文儒臣，論『易』口訣。”

이들 기사에서 세조가 비현함을 중심으로 직접 구결에 관여하는 ‘친정구결(親定口訣)’의 사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세조가 직접 구결에 참여하여 간행하였던 불경 중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어제 발문 내용을 예로 보면, 당시 구결 및 언해가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上이 입겨출 드르샤 慧覺尊者의 마지와시닐 貞嬪韓氏等이 唱準하야닐 工曹參判臣韓繼禧 前尙州牧使臣金守溫 은 飜譯하고 議政府{檢詳臣朴樸 護軍臣尹弼商 世子文學{臣盧思愼 吏曹佐郎臣鄭孝常은 相考하고 永順君臣漣은 例一定하고 司瞻寺尹臣曹變安 監察臣趙祉는 國韻 쓰고 慧覺尊子 信眉 入選思智 學{悅 學{祖는 飜譯正히온 後에 御覽하샤 一定커시닐 典言曹氏 豆大는 御前に 飜譯 넘스오니라”⁴⁹⁾라고 하였다.

위의 과정을 구체화해 보면, 첫째, 세조가 직접 입겨출 즉 구결을 먼저 달았다. 둘째, 해각존자 신미가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빈한씨(貞嬪韓氏) 등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을 하였다(唱準). 넷째, 한계희(韓繼禧)와 김수온(金守溫)이 번역하였다. 다섯째, 박건(朴健),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정효상(鄭孝常)은 상고하였다. 여섯째,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漣)⁵⁰⁾는 예(例)를 정하였다. 일곱째, 조변안(曹變安)과 조지(趙祉)는 국운(國韻)인 동국정운으로 한자의 음을 달았다. 여덟째, 신미, 사지(思智), 학열(學悅), 학조(學祖)는 번역을 바르게 하였다. 아홉째, 세조가 직접 보고 번역을 확정하면 조두대(曹豆大)는 세조 앞에서 번역을 소리내어 읽었다.

위 실록의 비현함 기사와 『능엄경언해』 어제 발문에 예시된 내용을 통해 세조대의 한문 원전의 번역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한문 문장에 구두(句讀)를 확정하고 정음으로 구결을 달아 구결문(口訣文)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한문 문장의 번역에서 원문에 구결을 다는 이른바 구결 현토(懸吐)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이었다. 구결을 제대로 달았다는 사실은 원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반영이면서,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결 확정부터를 번역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⁵¹⁾

세조대에 간행된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서에는 왕이나 왕실이 직접 나서서 구결을 확정했다는 기록이 권두서명 아래쪽의 구결작성자 기명행(記名行)과 발문 등 곳곳에서 확인된다. ‘親加口訣’ (『능엄경언해』, 김수온 발), ‘親印口訣’ (『선종영가집언해』, 신미 발), ‘親定口訣’ (『금강경언해』, 효령대군 등 발), ‘御定口訣’ (『원각경언해』, 구결작성자 기명행), ‘康寧殿口訣’ (『주역전의구결』, 구결작성자 기명행) 등이다.⁵²⁾

49)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어제 발문.

50) 이부(李漣, 1444-1470): 세종대왕의 5남 광평대군 여(廣平大君 瑵)의 아들로서 자는 준지(俊之), 시호는 공소(恭昭)이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부친을 여의자 세종이 가엾게 여겨 5세까지 세자와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8세가 되자 특별히 가덕대부(嘉德大夫)에 승서하고 영순군(永順君)에 봉하였다.

51) 김무봉, “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 『불교학연구』 제9호(2004), 186.

『목우자수심결』의 구결의 기명행은 ‘丕顯閣 訣’로 표시되어 있어 비현합에서 구결의 전과정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구결은 비현합에서 이루어졌지만, 세조가 직접 ‘親定口訣’을 하고 신미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인사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목우자수심결』의 번역

『목우자수심결』의 번역 작업은 신미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미는 속가의 이름이 김수성(金守省)이다. 본관은 영산(永山)이며, 김훈(金訓)의 장자이다.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은 그의 둘째 동생이다. 그가 태어난 해는 김수온보다 4년 정도 빠른 태종 5년(1405)경으로 보고 있다. 김수성은 출가하기 전에 집현전학사로 있었다.⁵³⁾ 언제 출가했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속리산 법주사(法住寺)에서 수미(守眉)와 함께 수행하였는데 그와 동갑이었다.⁵⁴⁾ 그의 스승은 속리산 주지였던 연희(演熙)로, 그는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 교학사였던 연희(衍熙)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⁵⁵⁾ 그의 득도사는 함허기화였다. 따라서 신미의 법통은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 무학자초(無學自超, 1327-1405) → 함허기화(涵虛己和, 1376-1431) → 신미 → 학열 · 학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⁶⁾

세종 28년(1446)에는 수미와 그의 제자 학열과 학조, 이선종사(利禪宗師) 수미, 판교종사(判敎宗師) 설준(雪峻), 연경사(衍慶寺) 주지 홍준(弘濬), 전 회암사(檜巖寺) 주지 효운(曉雲), 전 대자사(大慈寺) 주지 지해(智海), 전 소요사(逍遙寺) 주지 해초(海超), 대선사(大禪師) 사지(斯智) 등과 『석보상절』을 편찬하였다.⁵⁷⁾ 문종즉위년(1450) 7월 6일에 신미를 ‘禪敎宗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礙 慧覺尊者’로 삼고 금란지(金鸞紙)에 관교(官敎)를 써서 자초폭(紫綃幅)으로 싸서 사람을 보내어 주었는데, 우리 국조(國朝) 이래로 이러한 승직(僧職)이 없었다.⁵⁸⁾ 이 시기에 선교양종을 통솔하는 위치에 올랐다.

세조조에는 특히 왕의 비호를 받아 해각존자로 불리웠다. 세조 3년(1457) 대장경 50부를 인출할 때, 경판(經板)이 합전 해인사에 있으므로 경차관(敬差官) 윤찬(尹贊) · 정은(鄭垠)을 보내어 그

52) 김무봉, “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 『불교학연구』 제9호(2004), 186.

53) 『문종실록(文宗實錄)』 2권, 문종 즉위년 7월 15일 丁巳 朴彭年의上疏文.

54) 柏庵性聰, 『靈巖 道岬寺 妙覺和尚碑文』 『조선금석총람』 하: 『조선사찰사료』 상.

55) 황인규, “조선 전기 불교계 고승과 목우자 선포 - 조계종 법통상의 고승을 중심으로 -,” 『보조사상』 제21집(2004), 64, 68.

56) 황인규, “조선 전기 불교계 고승과 목우자 선포 - 조계종 법통상의 고승을 중심으로 -,” 『보조사상』 제21집(2004), 48.

57) 『석보상절(釋譜詳節)』 序文. 허웅 외, 『역주 석보상절』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58) 『문종실록(文宗實錄)』 2권, 문종 즉위년 7월 6일(무신) 1번째 기사.

“戊申 … 又以僧信眉爲禪敎宗都摠攝密傳正法悲智雙運祐國利世圓融無礙慧覺尊者, 以金鸞紙書官敎, 裹以紫綃幅, 遣人就賜之, 我朝以來, 無如此僧職. …”

일을 주관하게 하고, 또한 중 신미·죽헌(竹軒) 등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며, 각도의 관찰사에게 전지(傳旨)를 내려 그 비용을 보조하게 하였다. 무인년 2월에 일을 시작하여 4월에 인쇄를 마쳐, 각도의 명산거찰(名山巨剎)에 나누어 소장하였는데, 무릇 종이가 38만 8천 9백여 첩(貼)이 들었고, 식량이 5천 석이 들었으며, 다른 물건도 이만큼 들었다.⁵⁹⁾ 세조 4년(1458) 해인사의 인경경차관(印經敬差官) 정은(鄭垠)이 대장경 3부를 바치자 이를 흥천사에 두도록 하였다.⁶⁰⁾

세조는 11년(1465) 2월 20일에 신미가 세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에 상원사(上院寺)를 구축(構築)하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경상도 관찰사에 치서(馳書)하여 정철(正鐵) 1만 5천 근(斤), 중미(中米) 5백 석을 주고, 또 제용감(濟用監)에 명하여 면포(綿布) 2백 필(匹), 정포(正布) 2백 필을 주게 하고, 내수소(內需所)는 면포(綿布) 3백 필, 정포 3백필을 주게 하였다.⁶¹⁾ 세조 12년(1466) 윤 3월 17일에 상원사가 중창되자, 세조가 친히 상원사에 거둥하였다. 이때 왕세자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물거윤(勿巨尹) 이철(李徹)·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김수온·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 등과 더불어 수가(隨駕)하였다. 임금이 행궁(行宮)에 돌아와서 신숙주·한계희·노사신에게 명하여 문과 시장(文科試場)에 나아가서 참시(參試)하게 하였다.⁶²⁾

이와 같이 상원사의 중창은 세조 11년(1465) 2월 20일에 세조의 구병을 위해 시작되고 세조 12년(1466) 윤 3월 17일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성종 6년(1475) 김수온에 의해 작성된 『상원사중창기(上院寺重創記)』와 세조 10년(1464) 12월 18일에 작성된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미는 세조 사후 성종 4년(1473)경 속리산 북천사에 머물렀다.⁶³⁾ 현재 속리산 범주사 북천암에 남아있는 수암화상탑(秀庵和尚塔)⁶⁴⁾이 성종

59) 『대동야승(大東野乘)』 권53, 『동각잡기(東閣雜記)』 上, 본조선원보록(本朝璿源寶錄).

“世祖三年。天順丁丑。敎印出大藏經五十件。板在陝川海印寺。遣差官尹瓚鄭垠。董其事。且使僧信眉竹軒等監督。諭旨于各道觀察使。助其費。戊寅二月始役。四月畢印。分藏于各道名山巨剎。凡入紙地三十八萬八千九百餘貼。役糧五千石。他物稱是。”

60) 『세조실록(世祖實錄)』 13권, 세조 4년(1458) 7월 27일(임자) 3번째 기사.

“海印寺印經敬差官鄭垠進『大藏經』三件。命置于興天寺。”

61) 『세조실록(世祖實錄)』 35권, 세조 11년(1465) 2월 20일(정유) 3번째 기사.

“僧信眉構江原道 五臺山 上元寺。命承政院。馳書慶尙道觀察使。給正鐵一萬五十斤。中米五百石。又命濟用監。給縣布二百匹。正布二百匹。內需所給綿布三百匹。正布三百匹。”

62) 『세조실록(世祖實錄)』 38권, 세조 12년(1466) 윤3월 17일(무자) 2번째 기사.

“幸上院寺。王世子與孝寧大君 補、永膺大君 琰、勿巨尹 徹、蛇山君 灝、領議政申叔舟、上黨君 韓明澮、左議政具致寬、仁山君 洪允成、中樞府同知事金守溫·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士愼) [盧思愼] 等隨駕。上還行宮。命叔舟、繼禧、思愼。詣文科試場參試。”

63) 『성종실록(成宗實錄)』 29권, 성종 4년(1473) 4월 15일(을해) 2번째 기사.

“傳旨兵曹曰：‘忠淸道 報恩縣 福泉寺下去僧信眉·學悅給馬。’”

64) 수암화상탑(秀庵和尚塔)에 나오는 수암은 신미대사를 일컫는다. 이는 세조 10년(1464)에 세조가 원문에 한글로

12년(1481) 8월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성종 11년(1480)경에 임적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조는 7년(1461) 6월 16일에 간경도감을 설치하고⁶⁵⁾ 각종 불경을 번역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는데, 신미는 세조의 불경 번역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세조 8년(1462)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을 번역 시, 신미는 세조가 단 구결이 완성된 문장을 확인하고 번역을 바르게 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세조 10년(1464) 당나라 영가대사(永嘉大師)의 한문본에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수정(修定)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에 세조가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와 효령대군 및 승 해초(海超) 등이 번역하였다. 세조 11년(1465)에 당나라 종필이 지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효령대군이 수교하여 신미, 한계희, 강희맹 등이 번역한 것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이다.⁶⁶⁾

세조 13년(1467)에 『목우자수심결』, 『사법어(四法語)』, 『몽산화상법어(夢山和尚法語)』를 단독으로 번역하였고, 그 중 『목우자수심결』은 세조 13년(1467)에 비현합에서 구결하고, 신미가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제목을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라 하였다.

4. 『목우자수심결언해』의 판본

4.1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본

세조 13년(1467)에 비현합에서 구결하고 신미가 국역한 『목우자수심결』을 『목우자수심결언해』의 서명으로 하여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끝에는 역시 신미가 구결하고 국역한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 『동산증장주송자향각법어』, 『몽산화상시중』, 『고담화상법어』 등 『사법어언해』가 함철되어 있다.

간경도감본의 저본이 어떤 판본을 근거로 했는지 문헌상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현존본

토를 달고, 신미와 효령대군(孝寧大君) 및 승 해초(海超)등이 번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발문에 ‘臣僧秀庵道人信眉稽首謹跋’이라한 데서 알 수 있다.

65) 『세조실록(世祖實錄)』 24권, 세조 7년(1461) 6월 16일(을유) 2번째 기사.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66) 『세조실록(世祖實錄)』 35권, 세조 11년(1465) 3월 9일(병신) 2번째 기사.

“孝寧大君 補嘗讎校『圓覺經』, 至是事訖。… 繼禧、希孟以譯『圓覺經』功也。”

『세조실록(世祖實錄)』 35권, 세조 11년(1465) 4월 7일(계미) 2번째 기사.

“圓覺寺成。設慶讀會, 赴會僧一百二十八, 披覽御定口訣繙譯『圓覺修多羅了義經』, 飯外護僧二萬。是日幸圓覺寺。”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 p. 700.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御定口訣 慧覺尊子 臣信眉 孝寧大君臣補 仁順府尹韓繼禧等譯”

중에 세종 23년(1441) 영해부의 윤필암에서 간행된 판본이 소개되었다.⁶⁷⁾ 이 판본은 『수심결』에 『사범어』가 합철된 판본으로 현재 보물 제959-4 11호 경주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의 일부이다. 「고당화상법어」 끝부분에 ‘正統6年(1441)辛酉2月日 寧海龍頭山閨筆菴刊板’의 간기가 있고, 간기 다음 맨 뒷장에 ‘大化主前月庵寺住持大禪師信从(隣)/寫經禪德海底 同願禪師智如/刊板大禪師宗月’이란 간행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록이 있다. 윤필암본은 신린(信隣)을 책임자로 해성(海底)이 판하본을 쓰고 종월(宗月)이 판각에 관여하여 세종 23년(1441) 영해부의 윤필암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간행본에서 비로소 ‘四法語’의 체제를 갖추었다. 판본의 형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19.5×13.3 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行) 16자(字), 흑구(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24.3×17.0 cm 이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이 윤필암본이 간행된 지 26년 후인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혜각존자 신미가 국역한 언해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보물 제959-4 11호 경주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 중 『목우자수심결』의 권수면, 간기 및 시주질·필사·간판 기록

출처: 문화재청 국가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목우자수심결언해』 간경도감본에는 당시 불경 언해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쓰였고, 방점과 ‘·, ○, ㄷ, △, ㅁ’ 등이 쓰였다. ‘△’의 쓰임에는 혼란이 없다. ‘ㄷ업순’(수심결 19ㄴ)과 ‘엮이’(수심결45ㄱ)처럼 ‘△’이 종성에만 적히는 것과 ‘○’은 ‘이에’(수심결 19ㄱ), 스승 이(수심결 15ㄱ)에서처럼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였다. ‘ㅁ’은 부사파생접미사 ‘-이’ 앞에서만 쓰여 ‘가비야비’(수심결9ㄱ), ‘어즈러비’(수심결7ㄱ), ‘조스르비’(수심결11ㄱ) 등에서 나타난다.⁶⁸⁾ ‘ㅎ’은

67)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63(2015), 76-77.

68) 정우영, “『목우자수심결언해』 사범어언해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 (서울: 동기년회, 2009), 11-12에서는 “15세기 관관문헌에 반영된 표기법을 보면 ‘ㅁ’은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1461)에서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역주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는 국어 표기법사의 관점에서

관형형어미 ‘ㄴ’과 병서되어 ‘어루 마취불 디라’(수심결45ㄱ), ‘求홍 사르미’(수심결45ㄴ) 등으로 쓰였다. 각자병서는 ‘말쓰물’(수심결36ㄱ), ‘아니홀씩’(수심결2ㄴ)와 같은 예는 드물고, 대부분 ‘말스므로’(수심결19ㄴ), ‘아니홀식’(수심결12ㄴ) 등으로 쓰였다.⁶⁹⁾

이 책의 판식의 특징은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고 크기는 27.5cm×16.7 cm이다. 판심제는 ‘修心訣’ 또는 ‘法語’로 표기되어 있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목우자수심결』의 말미에는 “成化三年丁亥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라는 간기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행에는 판서자인 안혜(安惠)·유환(柳院)·박경(朴耕)의 이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세조 13년(1467)에 명필가들이 필서하여 간경도감에서 정각한 판본이다. 자체는 한글은 정방형 고딕체로 쓰여 있으며, 한문은 원필(圓筆)의 안진경체 필의가 보인다.

이 원간본은 규장각 소장의 보물 제770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보물 제934호, 개인소장본인 보물 제1848호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원간본으로 개인소장본과 일본의 소장문고본이 있다. 이 판본들을 <표 1>로 정리하고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조 13년(1467) 간행 『목우자수심결언해』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1) 牧牛子修心訣諺解	知訥(高麗) 著 ; 丕顯閣(朝鮮) 口訣 ; 信眉(朝鮮) 譯	木板本	세조 13년 (1467)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3.1×16.8 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770호
2) 牧牛子修心訣諺解	"	"	"	四周雙邊 半郭 18.8×12.8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5×16.7 cm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934호
3) 牧牛子修心訣諺解	"	"	"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5×16.7 cm	개인소장본(국립고궁박물관 기탁) 보물 제 1848호
4) 牧牛子修心訣諺解	"	"	"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5.8×17.0 cm	개인소장본
5) 牧牛子修心訣諺解	"	"	"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4.6×17.2 cm	일본 소장문고본

1) 이 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 一簣古貴 294.315-J563ma)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보면 매우 특이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봉’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책의 원고는 1461년 이전에 언해되어 그 후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69) 정우영,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 (서울: 동기년회, 2009), 12-13.

제770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은 상하 불분권 1책으로 선장의 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표지는 문양 및 장침한 실선으로 보아 후대에 개장되었다. 표제는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로 묵서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경성대학도서(京城大學圖書)’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권수에는 해각존자 신미가 구결하고 국역한 『사범어언해』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어서 신미가 국역한 『목우자수심결언해』가 합철되어 있다. 이는 장정할 때 선후를 정한 것으로 의미는 없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18.8×12.8 cm이며,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흑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법어(法語)’ 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있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3.1×16.8 cm이며, 다른 기관의 소장본보다 조금 작다. 그 이유는 개장 시 책의 윗 부분(天)과 아랫 부분(地)이 절단되어 작아진 것으로 권수 부분의 도장과 윗 부분에 쓰여진 주석의 일부가 잘려져 있다. 2장 난외 부분에 ‘冊主佛地庵沙門如海’라고 묵서되어 있어 불지암(佛地庵) 사문 여해(如海) 스님의 소장본이었다가 현재 규장각 소장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질검사에 의하면, 종이는 평량 23.71g/m², 두께 0.0508 mm, 밀도 0.478/m², 백색도 35%로 재질은 닥섬유이고 외발초지 합성섬유로 확인되었다.⁷⁰⁾ 지질은 얇게 뜯 저지로 조선 초기 세종에서 성종연간에 주로 사용되었던 인경지(印經紙)로 보인다. 인쇄는 먹색이 검고 인쇄면의 글자획이 선명한 초간본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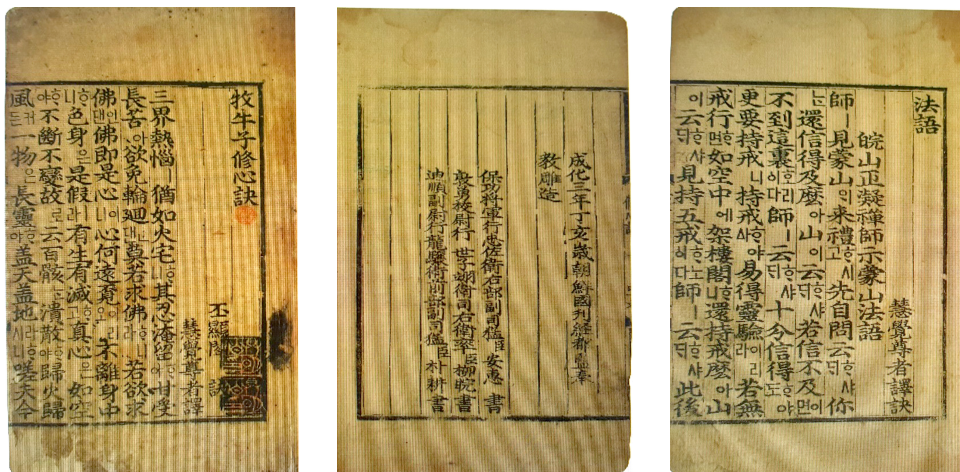


<그림 2> 보물 제770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범어언해·목우자수심결언해』의 사범어언해 권수면, 목우자수심결언해 시작부분 및 간기·필사 기록

출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kyupdf/pdfview.jsp>)

7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2013 규장각문화재 보존수리사업보고서』 3 代替本 (서울: 동연구원, 2014), 142.

2) 이 책은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제934호로 지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770호와 다른 것은 『목우자수심결언해』가 앞에 있고, 『사범어언해』가 뒤에 합철되었다. 판식(板式)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으며, 반곽의 크기는 18.8×12.8 cm이며,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후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법어(法語)’ 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7.5×16.7 cm이다.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 책의 크기 중 세로가 긴 것은 책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의 절단이 없기 때문이다. 장정은 개장되었고, 권수면은 부분적으로 훼손이 있는데 보수되었다. 인쇄는 먹색이 검고 인쇄면의 글자획이 선명한 초간본으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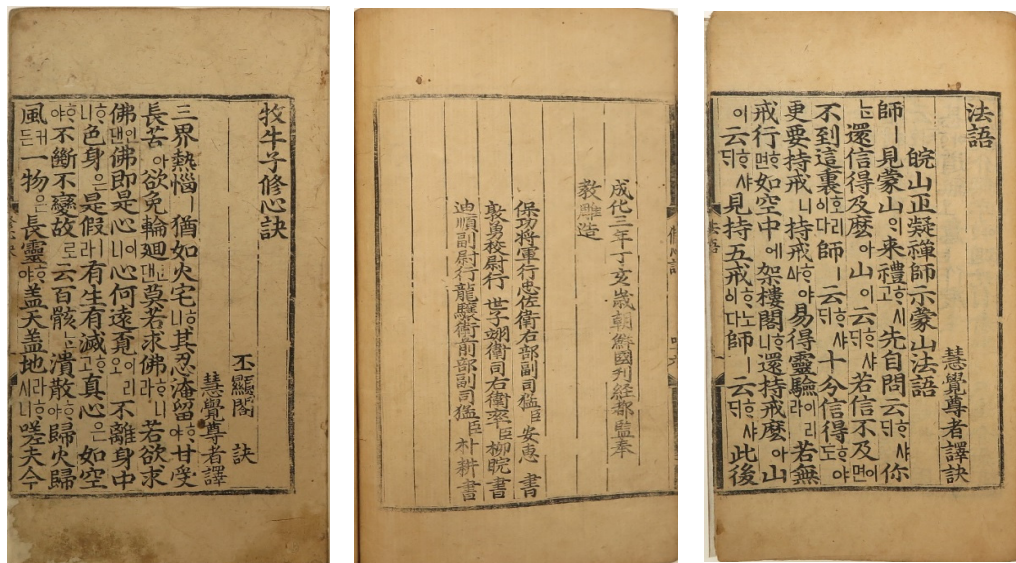


<그림 3> 보물 제934호 삼성미술관 리움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의 목우자수심결언해 권수면, 목우자수심결언해 간기·필사 기록 및 사범어언해 시작 부분

출처: 문화재청 국가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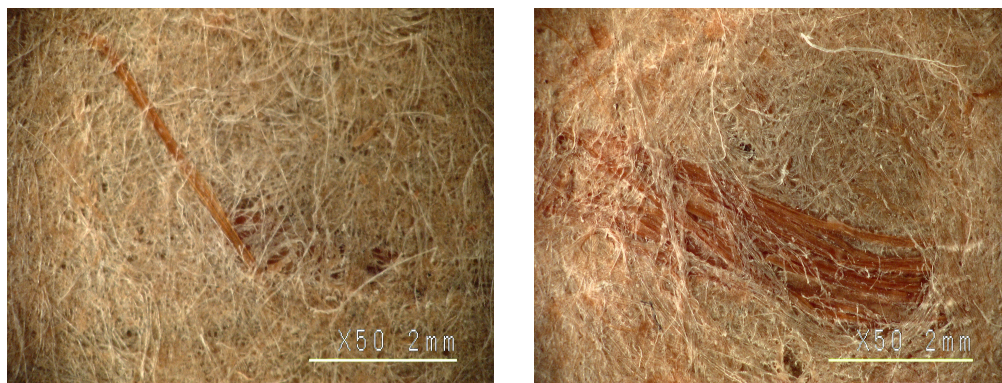
3) 이 책은 개인소장본으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보물 제1848호로 지정되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보물 제934호와 형식이 같다. 판식(板式)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으며, 반곽의 크기는 18.8×12.8 cm이며,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후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법어(法語)’ 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7.5×16.7 cm이다. 장정은 개장되었고, 권수면은 부분적으로 훼손이

있는데 보수되었다. 인쇄는 먹색이 검고 인쇄면의 글자획이 선명하여 초간본으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그림 4> 참조). 이 책의 종이는 현미경으로 물성검사를 한 결과, 발수가 '11~19 inch' 사이이고, 두께가 '0.06~0.12 mm' 사이로 분포도의 폭이 커서 여러 종류의 종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미경 사진으로는 노랑고 두꺼운 부분은 닥섬유 이외에 다른 섬유가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5> 참조).



<그림 4> 보물 제1848호 국립고궁박물관 위탁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의 목우자수심결언해 권수면, 목우자수심결언해 간기·필사 기록 및 사범어언해 시작부분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5> 현미경 검사에 의한 닥지 이외의 이섬유가 포함된 3장 바탕, 7장 바탕

4) 이 책은 개인소장본이다. 세조 13년(1467)에 간행한 초간본으로 『목우자수심결언해』와 『사범어언해』가 합각된 책이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18.8 × 12.8 cm이며,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흑구가 보이며,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법어(法語)’ 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5.8×17.0 cm이다. 장정의 표지는 오래되었고, 표제는 ‘修心訣 全’이라 묵서되어 있다. 권수면은 부분적으로 훼손이 있는데 보수되었다. 인쇄는 먹색이 검고 인쇄면의 글자획이 선명한 초간본으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보물 제770호, 보물 제934호, 보물 제1848호와 같은 책으로 보인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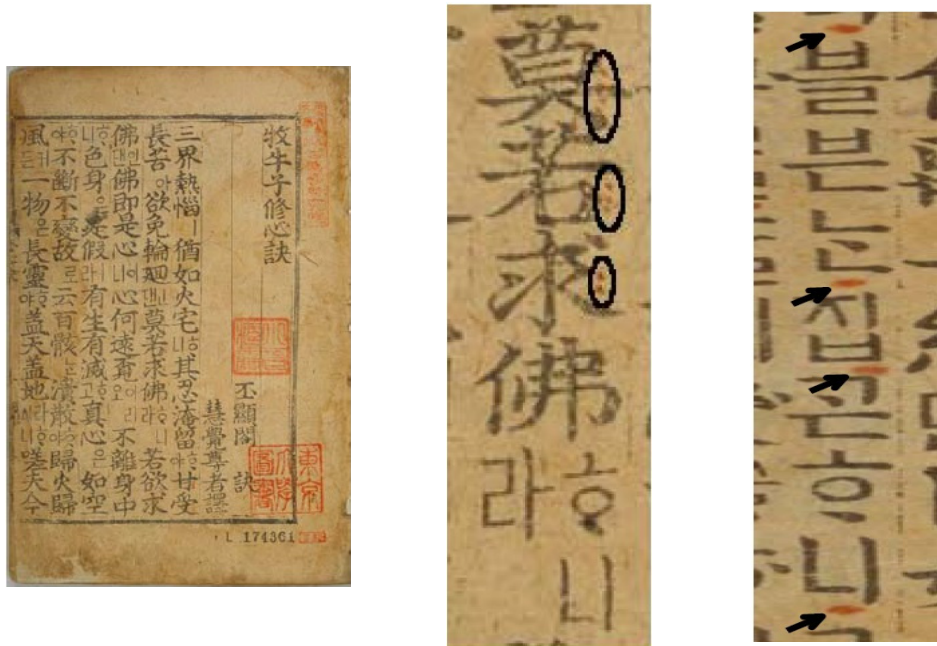


<그림 6> 개인소장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의 목우자수심결언해 권수면, 목우자수심결언해 간기·필사 기록 및 사범어언해 시작부분

출처: 개인소장

5) 이 책은 일본 소창문고(小倉文庫, 4361, L174361)에 소장되어 있다. 세조 13년(1467)에 간행한 초간본으로 『목우자수심결언해』와 『사범어언해』가 합각된 책이다. 국내의 판본들과 다른 특징은 그 원문에 훈독부호(訓讀符號)가, 그리고 언해문에 구두점(句讀點)이 주묵(朱墨)으로 기입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18.8×12.8 cm이며,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흑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법어(法語)’ 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있는데,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4.6×17.2 cm이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보물 제770호와 같이 세로의 길이가 작다. 그 이유는 개장 시 책의 윗 부분(天)과 아랫 부분(地)이 절단되었기 때문이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황지이고 실은 녹색실을 사용하였다. 인쇄 상태는 양호하다. 세조조 초간본으로 여겨진다.⁷¹⁾(<그림 7> 참조).



<그림 7> 일본 소장문고본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법어언해』의 목우자수심결언해 권수면, 본문 훈독부호의 예(01a5) 및 언해문 구두점의 예(02a9)

출처: 杉山豊, 2009, 164, 167, 169.

4.2 연산군 6년(1500) 봉서사본

연산군 6년(1500)본은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여 연산군 6년(1500)에 경상도 가야산(伽倻山) 봉서사(鳳栖寺)에서 번각한 것이다.

봉서사는 신라 왕실의 원찰로 세운 큰 절이었는데 대덕광전과 마주보이는 비봉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 제 51대 진성 여왕 즉위 2년(888)에 각간(角干) 위홍(魏弘)이 죽자 그를 혜성대왕으로 추존하고 해인사를 그를 위한 원당(願堂)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당암이라고 별칭하였다. 1894년 중창

71) 杉山豊, “東京大學 小倉文庫 所藏 『牧牛子修心訣』에 記入된 墨書 句讀點과 聲調의 相關性에 對하여,” 『어문연구』 37(4)(2009), 163-165.

당시 발견된 『누상구기(樓上舊記)』에 의하면, 연산군 1년(1495) 등곡(燈谷) 학조(學祖)대사와 전단속사(斷俗寺) 주지 신문(信文)선사가 중창하였다.⁷²⁾

봉서사본은 연산군 6년(1500)에 『목우자수심결언해』와 『사범어언해』가 합각된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된 책인데, 『목우자수심결언해』의 말미에 간행기록이 있다. 연산군 6년(1500) 봉서사에서 간행된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에 실린 등곡 학조대사의 발문(跋文)과 수심결의 간기(刊記)를 보면, 가야산 봉서사의 경민(岡敏)이 주관하고 경담(岡湛)과 윤정(胤禎)이 각수(刻手)로, 육회(六會)가 연판(鍊板)으로 참여하여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새긴 목판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현존하는 판본은 <표 2>와 같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개인소장본 등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산군 6년(1467) 간행 『목우자수심결언해』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1) 牧牛子修心訣諺解	知訥(高麗) 著 ; 丕顯閣(朝鮮) 口訣 ; 信眉(朝鮮) 譯	木板本 (刊經都監本 鐫刻本)	연산군 6년(1500)	四周單邊, 匡郭 18.8 x 12.6 cm, 有界, 9行 17字, 注雙行, 中黑口, 內向黑魚尾 ; 30.4×19.4 cm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 牧牛子修心訣諺解	"	"	"	四周單邊 半郭 18.8 x 12.6 cm, 有界, 9行17字, 中黑口, 內向黑魚尾 ; 26.0 x 17.0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貴 432)
3) 牧牛子修心訣諺解	"	"	"	四周單邊, 匡郭 18.8×12.6 cm, 有界, 9行 17字, 注雙行, 中黑口, 內向黑魚尾 ; 25.0×15.8 cm	개인소장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8호

1) 이 책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가람 古貴 294.315-H118m)에 소장되어 있다. 연산군 6년(1500)에 경상도 함천 봉서사에서 간경도감판을 그대로 번각하고 뒤에 간기만 새로 단 중간본이다. 간경도감판을 그대로 번각했기 때문에 내용과 체재에 있어 원간본과 거의 동일하다. 『목우자수심결언해』가 앞에 있고, 끝에 간기가 있으며, 『사범어언해』가 뒤에 합철되어 있다. 표제는 ‘指南文’으로 묵서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은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18.8×12.6 cm이다.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흑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법어(法語)’ 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30.4×19.4 cm이다. 뒷 표지 이면에 ‘冊主 池琪榮’으로 묵서되어 있어 어느 시기에 지기영의 소장본이었다가 현재 규장각 소장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번각본이어서

72) 김영선, “해인사 소장책판의 판각처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권(1998), 422.

인쇄가 거칠고 획이 끊긴 부분이 있으며 먹색이 고르지 않다(<그림 8> 참조).



<그림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법어언해·목우자수심결언해』 봉서사본의
목우자수심결언해 시작 부분, 간기 기록, 사법어언해 시작 부분

출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kyupdf/pdfview.jsp>)

2)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432)에 소장되어 있다. 연산군 6년(1500)에 경상도 합천 봉서사에서 간경도감관을 그대로 번각하고 뒤에 간기만 새로 단 것이다. 간경도감관을 그대로 번각했기 때문에 내용과 체제에 있어 원간본과 거의 동일하다. 『목우자수심결언해』가 앞에 있고, 끝에 간기가 있으며, 『사법어언해』가 합철되어 있지 않다. 표지를 개장하면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분리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책의 시작 부분의 1장 전후면, 2장 전면이 결장이고,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다. 판식의 특징은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18.8×12.6 cm이다.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후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여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여미 아래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6.0 × 17.0 cm이다. 번각본이어서 인쇄가 거칠고 획이 끊긴 부분이 있으며 먹색이 고르지 않다.

3) 이 책은 개인(김형찬)이 소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08호로 지정되었다.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연산군 6년(1500)에 경상도 가야산 봉서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이 책도 『목우자수심결언해』가 앞에 있고, 끝에 간기가 있으며, 『사법어언해』가 합철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은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18.8×12.6 cm다. 반엽은 9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중흑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법어(法語)’ 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5.0×15.8 cm이다. 이 판본은 실물조사가 어려워 판본의 상태는 알 수 없다.

4.3 선조 즉위년(1567) 순창 취암사본

이 책은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선조 즉위년(1567)에 순창 취암사(鷲菴寺)에서 새로 판을 조성하여 판각한 것이다.

취암사는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무량산 아래에 있던 사찰로, 건립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명종 22년(1467)에 원의 몽산이 저술한 『육도보설』을 대문으로 나누어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를 간행하였다. 이 자료는 지방판이라 판의 짜임새가 고르지 않고 잘 못 새긴 글자도 적지 않으나 중세국어 말기의 국어, 특히 전라도의 방언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후 정토신앙으로 유명한 백암(栢庵) 성충(性聰, 1631-1700)이 주석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⁷³⁾

현존하는 판본은 <표 3>과 같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선조 즉위년(1567) 간행 『목우자수심결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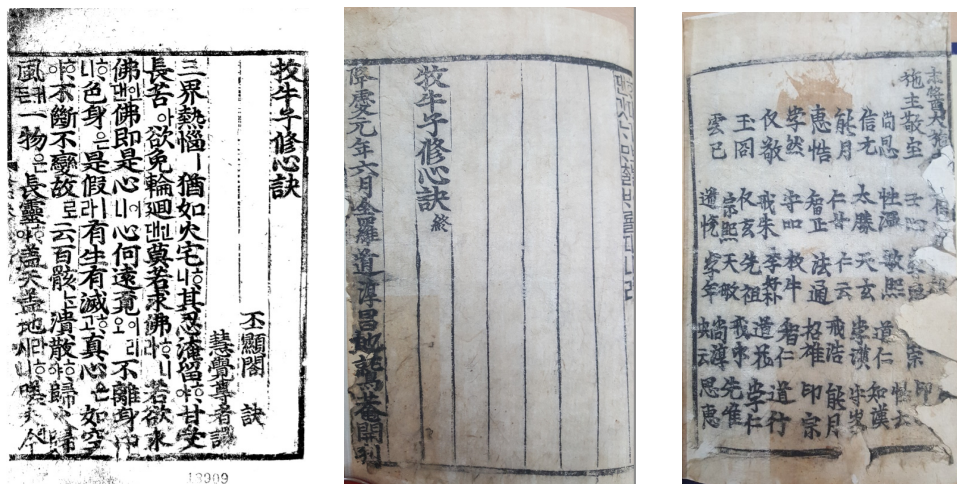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牧牛子修心訣諺解	知訥(高麗) 著 ; 丕顯閣(朝鮮) 口訣 ; 信眉(朝鮮) 譯	木板本 (刊經都監 本翻刻本)	선조 즉위년 (1567)	四周單邊, 匡郭 18.0×13.0 cm, 有界, 9行 17字, 注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 22.2×15.1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육당 貴 17)에 소장되어 있다. 선조 즉위년(1567)에 전라도 순창 취암사에서 간경도감판을 저본으로 하여 새로 판을 조성하여 판각한 것이다. 기존의 간경도감판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사주단변의 선이 굵고 흑구도 대흑구이다. 필사자 기록이 없어 누구의 필체인지 알 수 없지만 필체가 강하고 필선에 힘이 있으며 인쇄가 선명하고 먹색이 고르다. 『목우자수심결언해』가 앞에 있고, 끝에 ‘隆慶元年(1567)六日全羅道淳昌地鷲菴開刊’의 간기가 있으며, 『사법어언해』가 합철되어 있지 않다. 표지를 개장하면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분리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판식의 특징은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18.0×13.0 cm이다. 반엽은 9행으

73) 다음 지식백과, 디지털순창문화대전, 취암사. [검색일자 2018. 2. 5]

<http://suncha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sunchang&dataType=01&contents_id=GC05901293>

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행 사이에는 계선이 간혹 나타나 있으나, 일정하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대흑구가 보이며, 또한 그 사이로 상하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수심결(修心訣)’이란 판심제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는 장 수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2.2×15.1 cm이다(<그림 9> 참조).



<그림 9> 고려대학교 도서관 『목우자수심결언해』 취암사본의 목우자수심결언해 시작 부분, 간기 기록, 시주질 기록

출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5. 결 론

『목우자수심결』의 저술 및 내용, 구결 및 번역, 간경도감 언해본 및 후인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우자수심결』의 저자는 보조국사 지눌이다. 그는 고려 의종 12년(1158) 황해도 동주 출생이다. 휘는 지눌이고, 자호는 목우자이다. 지눌은 명종 12년(1182)에 승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육조단경』, 『신화엄경론』, 대혜보각선사의 『대혜어록』을 중시하였다.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경절문의 삼중문을 열었다. 희종 6년(1210) 3월 28일에 입적하였다. 시호를 불일보조국사, 탑호를 감로라 하였다. 세수는 53세요, 법랍은 36이었다. 저술은 비문에는 『정혜결사문』, 『상당록』, 『법어』, 『가송』이 각 1권이었다. 그 중 『상당록』, 『법어』, 『가송』은 일실되고 전해지지 않는다. 현전본 중 저술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권수정혜결사문』(1190년) 1권, 『계초심학인문』(1205년) 1권, 『화엄론절요』(1207년 1월) 3권, 『육조법보단경발』(1207년 12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1209년) 1권이다. 저술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목우자수심결』 1권, 『원돈성불론』 1권, 『간화결의론』 1권 등이다.

2) 『목우자수심결』을 저술한 시기는 명종 28년(1198)부터 희종 5년(1209) 사이이다. 지눌은 『목우자수심결』의 구성을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체계화하고, 서분에서는 수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정종분은 9개의 문답형식을 빌어 공적영지심, 돈오와 점수 그리고 정혜쌍수에 집중되고 있으며, 유통분은 경에서 설한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희유함을 일깨우고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3) 『목우자수심결』의 구결의 기명행은 ‘조顯閣 訣’로 표시되어 있다. 비현합은 경복궁 동궁전인 자선당 동쪽에 있는 전각이다. 세조 9년(1463)에 왕의 연거지소로 만들었고, 세조, 예종, 중종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목우자수심결』의 구결은 비현합에서 이루어졌지만, 세조가 직접 ‘親定口訣’을 하고 신미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인사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목우자수심결』의 번역 작업은 신미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미는 본관이 영산이며, 김수온은 그의 둘째 동생이다. 그가 태어난 해는 태종 5년(1405)경이다. 그의 스승은 연희였고, 득도사는 함허기화였다. 그는 문종 즉위년(1450) 7월 6일에 ‘禪敎宗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礙 慧覺尊者’가 되어 선교양종을 통솔하였다. 세조 3년(1457)에 대장경 50부를 찍을 때 감독을 맡았다. 세조 12년(1466) 윤 3월 17일 상원사 중창에 관여하였다. 세조 사후 성종 4년(1473)경 속리산 북천사에 머물렀다. 성종 11년(1480)경 입적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이 설치되자 신미는 세조의 불경 번역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중 『목우자수심결』은 세조 13년(1467)에 비현합에서 구결하고 신미가 국역한 것이다.

5) 세조 13년(1467)에 비현합에서 구결하고 신미가 국역한 『목우자수심결』을 『목우자수심결언해』의 서명으로 하여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끝에는 역시 신미가 구결하고 국역한 『환산정웅선사시몽산법어』, 『동산송장주송자향각법어』, 『몽산화상시중』, 『고담화상법어』 등 사법어가 합철되어 있다. 이의 저본은 세종 23년(1441) 영해부의 윤필암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여겨진다. 이 책에는 당시 불경 언해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은 ‘四周雙邊, 半郭 18.8×12.8 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고 크기는 27.5×16.7 cm이다. 판심제는 ‘修心訣’ 또는 ‘法語’로 표기되어 있다. 안해·유환·박경이 필서하였고, 자체는 한글은 정방형 고딕체로 쓰여 있으며, 한문은 원필의 안진경체 필의가 보인다. 원간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의 보물 제770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보물 제934호, 개인소장본인 보물 제1848호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원간본으로 개인소장본과 일본의 소창문고본이 남아 있다. 모두 인쇄상태가 양호하고 보관상태도 좋다. 소창문고본은 원문에 훈독부호가, 언해문에 구두점이 주묵으로 기입되어 있다.

6) 연산군 6년(1500)본은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여 연산군 6년(1500)에 경상도 가야산 봉서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간경도감판을 그대로 번각했기 때문에 내용과 체제에 있어 원간본과 거의 동일하다. 『목우자수심결언해』가 앞에 있고 끝에 간기가 있으며, 『사법어언해』가 합철되어 있다. 가야산 봉서사의 경민이 주관하고 경담과 윤정이 각수로, 육회가 연판으로 참여하여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새긴 목판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개인 소장본(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08호)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목우자수심결언해』만 남아 있고 『사범어언해』가 합철되어 있지 않다.

7) 선조 즉위년(1567)본은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선조 즉위년(1567)에 순창 취암사에서 새로 판을 조성하여 판각한 것이다. 『목우자수심결언해』의 말미에 ‘隆慶元年(1567) 六日全羅道淳昌地驚菴開刊’의 간행기록이 있다. 기존의 간경도판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사주단변의 선이 굵고 흑구도 대흑구이다. 필사자의 기록이 없어 누구의 필체인지 알 수 없지만 필체가 강하고 필선에 힘이 있으며 인쇄가 선명하고 먹색이 고르다. 현존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목우자수심결언해』만 남아 있고 『사범어언해』가 합철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 강건기.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사업회,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불일출판사, 2011.
- 金君綏. “佛日普照國師碑銘.”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 제4. 서울: 伽山文庫, 1997.
- 김무봉. “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 『불교학연구』 제9호(2004). 177-211.
- 김영선. “해인사 소장책판의 판각처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권(1998). 415-445.
- 『대동야승(大東野乘)』 권53, 『동각잡기(東閣雜記)』 上, 본조선원보록(本朝璿源寶錄).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 서울: 동위원회, 2009.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편. 『精選 知訥』. 서울: 동위원회, 2009. 『목우자수심결』 『문종실록(文宗實錄)』 2권, 문종 즉위년 7월 6일(무신) 1번째 기사.
- 『문종실록(文宗實錄)』 2권, 문종 즉위년 7월 15일(정사) 朴彭年의 上疏文.
- 박상국. “보조국사 지눌의 저술.”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사업회,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불일출판사, 2011.
- 柏庵性聰. “靈巖 道岬寺 妙覺和尚碑文.” 『조선금석총람』 하: 『조선사찰사료』 상.
- 杉山豐. “東京大學 小倉文庫 所藏 『牧牛子修心訣』에 記入된 墨書 句讀點과 聲調의 相關性에 對하여.” 『어문연구』 37(4)(2009). 163-165.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2013 규장각문화재 보존수리사업보고서』 3 代替本. 서울: 동연구원, 2014. 142.
- 『석보상절(釋譜詳節)』 序文. 허웅 외. 『역주 석보상절』.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 『성종실록(成宗實錄)』 29권, 성종 4년(1473) 4월 15일(을해) 2번째 기사.

- 『세조실록(世祖實錄)』 13권, 세조 4년(1458) 7월 27일(임자) 3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24권, 세조 7년(1461) 6월 16일(을유) 2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1월 8일(임술)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1월 9일(계해)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1월 15일(기사)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1권, 세조 9년(1463) 12월 19일(계묘)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2권, 세조 10년(1464) 1월 28일(신사)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5권, 세조 11년(1465) 2월 20일(정유) 3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5권, 세조 11년(1465) 3월 9일(병신) 2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5권, 세조 11년(1465) 4월 7일(계미) 2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9월 26일(경오) 3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10월 21일(을미)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11월 25일(기사)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12월 17일(경인)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7권, 세조 11년(1465) 12월 24일(정유)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8권, 세조 12년(1466) 윤3월 17일(무자) 2번째 기사.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63(2015). 63-90.
심재룡. 『지눌 연구: 보조선과 한국불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 p. 700.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정우영.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 서울: 동기념회, 2009.
知訥. 『華嚴論節要』 『보조전서』. 서울: 불일출판사, 1987.
황인규. “조선 전기 불교계 고승과 목우자 선포 - 조계종 법통상의 고승을 중심으로 -.” 『보조사상』 제21집(2004). 41-94.
다음지식백과, 디지털순창문화대전, 취암사. [검색일자 2018. 2. 5]
<http://suncha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sunchang&dataType=01&contents_id=GC05901293>
문화재청 국가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korea.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kyupdf/pdfview.jsp>)

